

# 프랜차이즈, 어느 분야보다 기업가정신 필요



**현대건설-인천항만공사, ESG경영 공동추진 맞손**  
현대건설은 지난달 30일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ESG 경영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운영준 현대건설 사장(오른쪽)과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건설

## 락앤락 신임 대표이사에 이재호 내정



락앤락이 신임 대표이사 체제를 준비하며 '제2 도약'에 나선다. 3일 락앤락에 따르면 이재호 전 LG전자 부사장(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하고 오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선임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SK셸더스, 금융보안원과 보이스피싱 대응나서**  
SK셸더스는 금융보안원과 대국민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으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 및 사후 피해 확산 방지에 힘을 쏟는다. 금융보안원 김철웅 원장(왼쪽)과 SK셸더스 이용환 사업총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셸더스



**중진공, 중소기업 융합 촉진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2022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중소기업 융합 촉진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중소기업 융합 촉진 공로로 단체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은 중진공이 유일하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이 대통령 표창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 인사

- ◆통일부 ◇고위공무원 승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고위공무원 나급 강연서 △남북출입사무소장 고위공무원 나급 최용석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박재영 ◇과장급 전보 △기술규제협력과장 노재홍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이용로 △기술규제조정과장 정의용 △원산지협력과장 권기성
- ◆환경부 ◇과장급 전보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김영민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이주창
- ◆해양수산부 ◇부이사관(3급) 승진 △소득복지과장 이종호 ◇과장급 전보 △어업기자재관리과장 강동양

## 부음

▲윤판씨씨 별세. 윤준호(전 국회의원)·윤지환·윤미용·윤득씨 부친상 = 2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5일 오전 7시30분. 051-636-4444



**이 상 현**  
창업 칼럼

올해 들어 프랜차이즈시장은 최대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수익성의 원천인 가맹점 매출은 떨어지고 그에 따라 물류수익 악화는 가속화 중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수익의 큰 한 축인 신규 가맹점 개설은 불안한 경기 상황에 어려워 수익도 줄어들고 있다. 총체적 어려움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유명 주류전문점 브랜드와 치킨브랜드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가맹점 수백개의 커피 브랜드도 부도위기에 놓였고 TV광고와 신문광고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던 모 외식브랜드도 극심한 자금압박으로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와 있다. 정말 어려운 작금의 창업시장 환경이다. 최근 필자에게 조심스럽게 브랜드 M&A를 요청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시장에서 건실한 브랜드로 손꼽히는 브랜드들도 있고, 브랜드 규모만 요란한 빈껍데기 회사도 있다. 아무튼 점점 브랜드 판매를 원하는 기업들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현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최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GDP의 9.3%, 전체고용은 5.6%에 이를 만큼 성장했다. 급속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업종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건전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M&A가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훌륭한 관련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평가와 잔존 가치를 파악하는 실사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일반기업의 가치평가 방식과 상이하다. 브랜드의 내제적 가치와 성장가능성에 대한 가치척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자산가치 중 미래적 브랜드 가치가 그것이다. 프랜차이즈는 유명 연예인과 비

슷한 생명주기를 갖는다. 해당 브랜드가 소위 메스컴과 고객의 입에 오르내리면 그에 따른 후광효과와 함께 고객의 관심과 몰입현상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이슈에서 멀어지면 해당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흡입성도 멀어지고 그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으로 제2, 제3의 브랜드를 출시한다. 단순한 이유와 현상에 의한 브랜드 소멸전쟁은 너무나 큰 파장을 가지고 있다. 가맹점 점주와 가족,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 참으로 그 어느 업종보다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업종이라 하겠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 현대차그룹, 글로벌 네트워크로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 중남미 3개국, 유럽 2개국 대상 개최 당위성 설명 등 유치 활동

현대자동차그룹이 전세계에 걸쳐 구축돼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16~27일(이하 현지시간) 우루과이와 칠레, 페루 등 중남미 3개국과 세르비아와 슬로베니아 등 유럽 2개국을 대상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송호성 사장은 부산은 친환경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중심에 있으며, K-컬처를 통한 글로벌 문화교류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송사장은 지난달 18~23일에는 남아공과 모잠비크,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직접 방문해 현지서 유치활동을 펼쳤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그룹 권역본부 차원에서 유치전에 나서기로 하고, 최근 중남미권역본부와 유럽 권역본부가 해당 권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지 득표활동에 나섰다. 이수영 기아 중남미권역본부장은 지난달 21일, 칠레 산티아고의



9월 21일 칠레 산티아고의 외교부청사 앞에서 이수영 기아 중남미권역본부장(오른쪽부터)이 파트리시오 포벨 칠레 외교부 아태국장장과 마우리시오 부드느 기아 칠레 대리점 대표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파트리시오 포벨 외교부 아태국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앞서 20일에는 안드레스 잘디바르 전(前) 상원의장과 토마스 라고 마르시노 하원의원을 연이어 만나 2030 세계박람회 개최 추진 도시로서 부산의 경쟁력과 미래비전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칠레 방문

단은 현지 유치 활동 과정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로고가 랩핑된 EV 6차량을 타고 산티아고 주요 지역을 이동하는 등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현지에 알렸다. 22일에는 페루 리마에서 루이스 미겔 카스티야 페루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후안 카를로스 카푸냐이 전 APEC 사무총장, 프란시스코 테나 하세가와 전 외교부 사무총장 등과 면담시간을 갖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이어갔다. 유럽에서도 부산 유치를 위해 주요 고위급 인사 대상 유치활동을 벌였다. 정원정 기아 유럽권역본부장은 지난달 16일,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경제개발기술부를 방문해 대안 위단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스네자나 포포비치 경제개발기술부 국제협력국장 등을 만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요청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LG전자, 그램360으로 만든 '심청전' 뮤비 인기

## 줄리아 류 작사·작곡 '다이버' 디지털 광고영상 1200만 조회

LG그램 광고 영상이 감동 이야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공개한 LG그램 360 디지털 광고 영상이 1200만 조회수를 넘어서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공개 후 시간당 2만여명이 시청한 셈이다. 이 영상은 창작뮤지컬 '심청 : 전래동화'의 노래 '다이버'를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로 만들었다. 심청이 인당수에 뛰어드는 장면으로 시작해 아름다운 음악과 영상미를 보여준다. 다이버는 하버드대에서 공연예술을 전공하는 한국계 미국인 줄리아 류가 작사·작곡한 곡이다. 줄리아는 LG전자에 그램 360을 활용한 뮤직 비디오 제작을 제안받아 제작을 진



LG전자는 LG그램으로 만든 디지털 광고 영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LG전자

행했다. 국내 모션그래픽 제작사 콧 스튜디오도 협업했다. 영상을 본 줄리아 류는 "LG 그램 360 덕분에 내 꿈이 완벽한 스토리로 완성됐다"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준 LG전자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영상을 시청한 고객들도 "우리나

라 전통 이야기가 아름다운 노래와 애니메이션으로 재해석돼 표현되는 것이 감격스럽다", "심청의 새로운 도전을 표현한 노래와 영상에 전율이 돋는다"와 같은 호평을 남기고 있다. 심지어는 짧은 영상이 아닌 정식 애니메이션 영화를 기대한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 풀무원 괴산유기농엑스포서 지속가능한 제품 소개

풀무원이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제품과 바른 먹거리 원칙, ESG 경영 활동을 알린다.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충청북도와 괴산군, 아이폼유기농국제본부(IFOAM-Organics International)가 공동 개최하는 지구촌 최대의 친환경농업 축제로 2015년 제1회 유기농 엑스포에 이어 7년 만에 열렸다. 풀무원은 이번 엑스포에서 '바른 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 풀무원'이라는 컨셉으로 풀무원의 다양한 지속가능식품과 ESG 활동을 함께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원성기자 tree6834@